

2023년 04월 1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8장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07(통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1장 17~34절(신약p.781)

17.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번인가
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거같이 되었도다
19.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0.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21. 그의 달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23.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4.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25.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26.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27.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28.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29.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30.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31.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충하라
32.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33.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34.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때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이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그때를 따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 막힘이 없고, 매이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만사형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가 아니라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론 너무나 더디고 어렵게 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옴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악인들은 여전히 평안하며 그들은 건강하여 장수하고 재앙이 그들에게서 먼 것처럼 느껴지기에 옴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악인은 멸망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날은 더디고 아직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심판이 이를 때까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옴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증거합니까?

1.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옴은 악인이 현실에서 심판받는다든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옴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곤고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본문 17~18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고도.”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전 성경인 개혁신판 성경으로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 같이 되는 일이 몇번이나 있었느냐”로 되어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기운이 넘치고 안전하며 평안히 지냅니다. 이미 옴은 7~12절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23~25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악인은 형통하고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죽는 것을 본다고 토로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옴은 악인들이 자기의 멸망과 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8~20절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고도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옴은 누구보다 악인이 강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개선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날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까지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과연 성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은밀하게 쌓아 두시며 그것을 갚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내는 악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 이것은 분명 죄로 인한 심판의 사건이면서 한편으로는 120년의 시간 동안 저 높은 산 위에 만들어지는 방주를 보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 또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임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오직 그 사랑을 힘써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영혼 구령사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을 하기 위해 성도는 오직,

2. 바른 진리를 널리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욥은 친구들의 일관된 조언들이 결국 자신을 비난하려는 의도임을 알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멸망과 선한 사람들의 복이라는 단순한 명제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그런 단순한 명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세상에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망한다고 하지만, 악인들은 번성하는 반면 선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욥은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세상의 일을 조금만 살펴보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편협한 관점으로 자기에게 교훈하는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친구들의 그런 말로는 선하게 살면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처를 준다고 말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구주 예수님이 친히 고난당 하셨기 때문에 고난당 하는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더욱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더디게 온다고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사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로 서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향해 내달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91(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 폐 회 / 주기도문